

투데이 칼럼

멈춰 선 전북의 하늘길, 멈춰 선 행정

전북의 하늘길이 막혀 있다. 정확히 말하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주와 청주공항, 그리고 전주와 김해공항을 잇는 직통버스 노선 조정 문제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이제는 단순한 교통편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의 접근성과 지역 경쟁력, 그리고 국가 행정의 책임성까지 묶는 문제다.

문제의 발단은 202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고속, 전북여객, 호남고속, 전주고속, 대한고속 등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선 조정을 신청했다.

전주에서 청주공항과 김해공항으로 연결되는 직통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재편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는 도민의 이동권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이 간단해 보이는 요구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다. 청주공항을 관할하는 충북 및 경기 지역 업체, 김해공항을 관할하는 경남·부산 지역 업체들이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서 시간은 중앙정부의 조정 대상으로 넘어갔다.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판단을 맡게 되었지만, 조정문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무기한 연장탄 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마땅할 것이다.

전북도민은 국토교통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시간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관광객 유치, 기업 투자,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까지 모두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 현실은 전북이 국가 정책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정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인위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듯하다. 이른바 '북지부동' 행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사회에 적극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며, 행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전북은 자체 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도민들은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접근성은 곧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청주

공항과 김해공항으로의 직통버스 노선은 단순한 교통편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생명선'과도 같다.

관객 유치, 기업 투자,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까지 모두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 현실은 전북이 국가 정책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정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인위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듯하다. 이른바 '북지부동' 행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사회에 적극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며, 행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지연

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전북도와 관련 업체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연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행정의 지연은 곧 기회 상실이다. 관광 시즌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업의 투자 결정도 무한정 미뤄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은 보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국가는 과연 지역의 요구에 얼마나 책임 있게 응답하고 있는가?"

전주와 공항을 잇는 버스 노선 하나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신뢰 문제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에 대한 시험대다.

행정은 움직일 때 의미가 있다. 멈춰 있는 행정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제 답해야 한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 결론이 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전북의 하늘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사설

트럼프 방식 안 통하는 전쟁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마주 앉더라도, 최종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핵과 호르무즈해협 문제처럼 양국이 팽팽히 맞서는 문제는 여전한데, 이런 선택 나포로 결말들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빠르게 답관을 지으려는 트럼프 식 협상이, 집요한 이란을 상대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무 시간 넘은 출다리기 협상 끝에 '노딜'로 끝난, 1차 답판이다.

물밑 협상도 더 악화됐다. 잠시 풀렸던 호르무즈해협은 다시 닫혔고,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에 나서며, 이란 선박과 선원들을 나포했다.

이란은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극히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국제기구와 유엔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풀지 않을 것"이고 "봉쇄가 이

란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포 선박 처리 문제까지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해결할 문제가 늘었다. 핵심 이슈인 핵 물밑 처리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도 그대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년 이상 우라늄 농축 중단, 고농축 우라늄 반출'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농축 중단 기간이 너무 길고, '반출은 협상에서 제기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윌스트리트저널은 오히려 미국 측이 10년 동결 중단 뒤 10년간 핵 연구는 허용하는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이란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총동적인 반면, 이란은 집요하다"며 단기 답관을 추구하는 트럼프식 협상이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만금 물막이 2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히 연결된 지 20년이 지났다. 정권에 따라 여러 부침을 겪으며 '희망 고문'의 상징으로 불렸던 새만금이다.

이젠 국가 미래 첨단 산업의 개척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년 전, 새만금 방조제 가력도 구간 끝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며 새만금 내부 개발 대역사가 시작됐다.

여전히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은 초기 기대와 달리 정권 교체와 잇단 정책 변화로 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기업 투자 번복이 이어지며 '희망 고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년이 흐른 지금은 다시 희망을 키우고 있다. 전체 매립 면적의 42%, 축구장 만 7천 개 규모의 땅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농생명 산업까지 복합 산업 공간으로 변모하며 기업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새만금 전역을 20만 생활권으로 묶는 간선도로와 항만과 철도, 공항 인프라도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새만금에 약 9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현대차 대규모 투자 결정은 새만금 개발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며 오랜 시간 구상에 머물렀던 첨단 산업 거점으로의 전환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 유치에 주력해 지역 경제 전반에 투자 온기를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류 인프라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글로벌 메가특구처럼 규제 완화를 위한 핵심 특구로 자리 잡아 아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새만금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

독자재언

가장 행복해야 할 5월, '무사귀가'가 축제의 완성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이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행사들이 상춘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즐거운 축제의 이면에는 '교통사망사고 급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근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음주운전과 직간접적

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경각심을 줍니다.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마신 '한두 잔'의 술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단란했던 한 가정을 순식간에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축제장 주변이나 연휴 기간에는 들뜬 마음으로 인해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살마 나 하나에게 큰 충격과 경각심을 줍니다.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마신 '한두 잔'의 술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단란했던 한 가정을 순식간에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사수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동승자와 주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 주최 측과 경찰의 엄격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행사장 주변의 음주단속 강화는 물론,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교통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5월, 할나의 밤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안 됩니다. 축제의 완성은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무사귀가'에 있습니다.

오경택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